

◆ 書 評

沈 載 烈 著

元曉思想 2 倫理觀

弘法院, 1983, 크라운판, 576 면

李 英 茂*

元曉(A.D. 617~686)는 新羅時代의 대표적인 學德이 구족한 高僧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文化思想史에 있어서도 가장 위대한 분이다. 그러기에 高麗의 大覺國師 義天은 元曉를 가장 존경하고 찬양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佛乘에 마음을 두어 先代 善知識들의 學問과 德行을 두루 배우고 익히 관찰하여 왔으나 元曉 聖師의 위에 지나가는 이가 없다” 하였다.

근자에 趙明基博士는 「新羅佛敎의 理念」을 著述할 적에 '元曉의 著述에 관하여 100여部 240餘卷의 著書 목록을 여러 文獻에서 찾아내어 소개하였고, 現存하는 著書만도 20部 23卷을 수집하여 「元曉全集」全 10卷을 프린트本으로 간행하였다. 그 뒤를 이어 佛敎同人會 寶蓮閣 등에서도 「元曉全集」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元曉에 관한 몇편의 研究論文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元曉思想이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까지에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던 것이 1967년도에 李箕永博士가 元曉思想에 관하여 조직적인 研究를 계획하여 「元曉思想 全集」全 5卷의 研究刊行을 구상하였으니 즉 第1卷에서는 「大乘起信論疏」와 「大乘起信論別記」를 主資料로 하여 元曉의 世界觀의 基本原理를 천명하고, 第2卷에서는 「菩薩戒本持犯要記」와 「梵網經菩薩戒本私記」와 「大乘六情懺悔」등을 主資料로 하여 元曉의 倫理觀을 정리하여 밝히고, 第3卷에서는 「金剛三昧經論」과 「十門和諍論」등을 主資料로 하여 元曉의 平和觀과 統一의 哲學을 연구하여 밝히고, 第4卷에서는 「法華經宗要」와 「大慧度經宗要」등을 主資料로 하여 元曉의 眞理觀을 찬양하여 밝히고, 第5卷에서는 「涅槃經宗要」와 「遊心安樂道」등을 主資

* 建國大敎授·佛敎史

료로 하여 元曉의 自由觀을 연구하여 밝히겠다는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計劃下에서 제일차적으로 1967년에 圓音閣 金仁鳳社長의 주선으로 「元曉思想 1 世界觀」이 간행되어서 學界와 佛敎界는 물론이요, 전국민적인 환영이 있었고 아울러 계속적으로 第2卷부터 第5卷까지가 順次的으로 연구·간행되기를 鶴首苦待하였다.

그러나 그뒤 17년이 지나도록 이 연구 간행 사업이 더 계속되지 않아서 國民 모두가 매우 안타까워하던 차에 이번에 佛敎學者인 沈載烈先生이 오랜 연구와 노력의 결정으로 「元曉思想 2 倫理觀」을 著述하여 弘法院 金正佶社長의 주선으로 간행되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元曉思想 2 倫理觀」은 著者が 佛敎의 敎理發達史의 측면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것이다. 그것은 佛敎의 敎主이신 釋迦世尊은 智慧와 慈悲와 行願의 萬德을 圓滿具足하신 光明의 결정이며 상징이다. 그러므로 釋迦世尊이 在世하셨을 때에는 大乘, 小乘의 구별이나 空宗, 有宗의 爭論 같은 것은 없었고 오직 각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修行하여 證道하는 一味 平等의 根本敎法 그것이 있을 뿐이다.

그러던 것이 그뒤 佛敎史에서 點綴되어 오는 것과 같이 印度에서는 部派佛敎의 시대를 거쳐 大乘, 小乘의 對立시기를 이루었고 中國에서는 소위 禪宗, 敎宗 등의 各宗各派로 분열되면서 敎學體系를 달리 세웠고 따라서 實踐方法의 주장도 다양해서 끝내는 彼와 我的 優劣과 是非의 爭論이 끊임없이 일어나 佛敎界의 대립과 혼란을 일으켜 왔었다. 이러한 佛敎史에서 元曉大師가 出現하여 大, 小, 空, 有 등의 佛敎對立의 論爭을 止揚하여 佛敎의 根本精神으로 歸一시키는 ‘和百家之異諍會佛意之至公’, 和會와 統一의 理念을 提唱하였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날 元曉思想의 再照明은 民族文化의 再定立에 즈음하여 매우 意義있는 일이다.

佛敎의 倫理觀의 근본 정신과 그 실천의 德目들이 반드시 佛敎의 律典에만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經論에서 禪定, 智慧, 精進, 行願, 四攝法, 八正道, 報恩, 知恩, 布施 등의 敎訓과 修行要綱이 전부 倫理로서 說示되어 있다.

그렇지만 佛敎는 인간사회의 완성을 지향하는 종교이기에 개인의 완성을 위한, ‘成佛論’과 사회의 완성을 위한 ‘淨土論’이 提起되어 왔다. 이러한 人間의 개인의 완성과 사회의 완성에 理想的인 存立의 근거가 되는 規範으로서 道德과 倫理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佛敎의 大乘戒(菩薩戒)는 모든 衆生들을 갖가지로 利益되게 함은 물론이요, 그들로 하여금 生死輪廻의 굴레를 벗어나고 온갖 對立을 없애는 즉 ‘無諍’ ‘無爲’인 涅槃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어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는 自利利他를 겸한 二利圓成의 倫理이다. 그러므로 一般倫理가 주로 사회적 질서유지에 중점을 두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倫理이다.

그러기에 佛敎의 ‘不殺生戒’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단순히 人間秩序로서 지켜야 하는 一般倫理의 행동규범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生命의 尊嚴性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佛敎에서는 生命을 죽이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生命을 건져주고 살려주는 적극적인 德目과 아울러 大宇宙의 全體生命의 自覺으로부터 오는 理性律로서 모두가 영원하고 絕對的인 本體自我的 生命을 함께 실현하는데 最高究意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元曉는 높이 부르짖었다.

그러므로 元曉는 佛敎의 많은 律典 속에서 大乘戒인 菩薩戒를 근본사상으로 제

시하였다. 그는 菩薩戒의 정신을 설명함에 있어서 “生死와 煩惱에 물든 흐름에서 거슬러 올라가 마음의 本源에 돌아가게 하고 사악한 행위를 벗어나 光明正大한 데로 나아가게 하는 要門이라(菩薩戒者 返流歸源之大津, 去邪就正之要門)” 하였다.

佛敎가 倫理로서 提示되는 戒律에는 대개 止惡을 목표로 하는 것을 ‘攝律儀戒’라 하고 行善을 主目的으로 하는 것을 ‘攝善法戒’라 하고 社會淨化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攝衆生戒’라 하니 이를 ‘三聚淨戒’라 한다. 이러한 三聚淨戒의 근본 정신은 大乘의 최고 목표인 ‘菩提’와 ‘涅槃’의 큰 覺에 들어감을 목적으로 한다.

元曉는 이 三聚淨戒의 정신을 매우 중요시하여 이를 분석하여 말하였으니 “攝律儀戒와 攝善法戒는 自利의 戒이므로 들어간다는 뜻이 있고(以入爲義), 攝衆生戒는 利他의 行이므로 나간다는 뜻이 있다(以出爲義). 그러나 利他와 自利는 결국 둘이 아니고 하나로 昇華시킬 때에 큰 覺의 菩提가 성취된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元曉는 ‘梵網經菩薩戒本私記’에서는 菩薩道의 精神을 밝히면서 佛性의 戒로서의 三聚淨戒를 들어서 말하고 이어서 中國佛敎의 두 巨星인 天台宗의 智顛가 본 三聚淨戒의 사상과 華嚴宗의 賢首가 본 三聚淨戒의 사상을 비교·종합하여서 결론짓기를 “三聚淨戒는 菩薩提心を 일깨워주는 甘露”라 하였다.

元曉는 또 이 經의 題目인 梵網의 뜻을 풀이하여 “帝釋天宮에 있는 寶網은 온갖 구슬로 장식되어 그 구슬과 구슬의 빛이 서로 交映하여 重重無盡하듯이 인간의 사회 구성도 그러하여서 개인과 개인 사이, 개인과 국가 사이 즉 個體와 全體와는 圓融하여 相即 相入한다. 그러므로 世俗의 道理(俗諦)와 眞理의 세계(眞諦)는 둘이 아니다” 하였다. 이러한 元曉의 倫理觀은 결국 인간사회를 떠나서 佛敎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人間의 문제가 곧 佛敎의 문제임을 말한 것이요 따라서 人間의 문제는 帝釋天宮에 있는 寶網의 구슬들이 서로 交映하듯이 個體와 全體와의 관계는 서로 떠나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佛敎의 倫理는 이 兩面의 圓融에 있는 戒律임을 밝혔다.

그러기에 元曉는 菩薩戒를 修行하는 大乘의 길은 밖으로의 行과 아울러 그 行의 근원이 되는 心에 중점을 두어서 “心地는 佛과 衆生의 歸一點이라” 하였다. 그리고 또 菩薩戒가 잘 지켜져야 衆生이 淨化되고 社會가 淨化됨을 강조하여 “戒는 菩提心を 일으키는 因緣이라” 하고 菩薩戒의 因果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고 菩薩戒의 利益을 말하면서 菩薩戒만이 人間淨化에 障礙要因이 되는 惑障과 業障의 二障을 끊는다. 그러니 三聚淨戒에 孝順하라 하였다.

元曉는 「梵網經菩薩戒本私記」上下 2卷을 저술하여 上卷에는 菩薩戒의 十重大戒를 설명하고 下卷에는 菩薩戒의 四十八輕垢戒를 해석한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이 下卷은 失傳되었기에 元曉의 菩薩戒에 대한 倫理觀은 주로 이 上卷에 해석된 十重大戒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菩薩의 十重大戒라 함은 ① 不殺生에 관한 戒요 ② 不偷盜에 관한 戒요 ③ 不邪淫에 관한 戒요 ④ 不妄語에 관한 戒요 ⑤ 不酤酒에 관한 戒요 ⑥ 不說四衆過에 관한 戒요 ⑦ 不自讚毀他에 관한 戒요 ⑧ 不貪에 관한 戒요 ⑨ 不瞋에 관한 戒요 ⑩ 不誹謗三寶에 관한 戒이다.

元曉는 不殺生에 관한 戒를 설명하여 “生命을 모든 것에 優先한다”하여 生命의 尊嚴性を 강조하였고, 또 殺生罪에 대하여는 上中下 三品으로 분류하며 殺生罪를

판결하는데 네가지의 기준을 세웠고 또 자기가 직접 죽이든지 남을 시켜 죽이든지 방편으로 죽이든지 죽이는 것을 讚歎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였다. 또 不偷盜에 관한 戒의 설명에서도 먼저 大乘의 盜戒觀을 밝히고 이어 자기가 직접 도적함은 물론이요 남을 시켜 도둑질하거나 방편으로 도둑질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을 讚嘆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면서 盜罪의 여섯가지 이유를 밝히고 盜罪를 판결하는 네가지의 輕重을 들었다. 이렇게 十重大戒에 대하여 일일이 元曉의 戒律觀이 나타난다. 元曉의 이러한 罪를 짓게 되는 원인과 罪를 判決하는 輕重의 기준 등은 종래의 律文主義적인 해석이 아닌 데 특성이 있다. 元曉의 戒律觀은 身犯보다 心紀에 더 비중을 두었다.

元曉는 「梵網經菩薩戒本私記」와 아울러 쌍벽을 이루는 것이 「菩薩戒本持犯要記」이다. 이 책에서는 菩薩戒의 重大大戒 가운데의 第7 不自讚毀他에 관한 戒에 대한 한편의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論旨는 輕重門과 淺深門과 究竟持犯門의 3章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첫째, 輕重門에서는 戒의 근본 목적이 罪를 對治하는데 있다. 이 點에 대하여 元曉는 罪를 짓는데 三緣과 四因이 있음을 들어서 먼저 罪를 짓게된 動機에 대한 觀察을 하였고 이어서 꼭 같은 犯戒라 하여도 罪가 되는 경우와 그 반대로 福이 되는 경우의 四種罪福說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보면 元曉는 律文主義者가 아니다. 그리고 犯戒에서 罪가 되는 경우에도 上中下의 三品으로 나누어서 輕罪와 重罪를 구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를 輕重門이라 한다.

둘째, 淺深門에서는 元曉는 이 佛戒가 제정된 근본 정신을 밝히고 똑같은 持戒라 하여도 下士의 持戒와 上士의 持戒가 다른 점을 들어보이면서 菩薩戒의 참다운 持戒는 上士的인 持戒 태도가 옳다고 하여 四句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持戒의 태도가 淺한가 深한가를 밝힌 것이 淺深門이다.

셋째, 究竟持犯門에서는 元曉는 戒의 實相을 밝히면서 戒는 罪를 대상으로 하여 설정되는 것인데 罪는 본래 自體가 없어서 因緣을 떠나서는 罪를 찾을 수 없고 因緣도 그 자체가 유동적이어서 일정치 않다. 그러므로 戒도 因緣을 떠나서는 찾을 수 없고 因緣이 流動的이니 戒도 일정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菩薩戒는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持戒의 자세로서 얻을 것이 없는 마음으로 닦으라 하였다.

元曉는 「菩薩瓔珞本業經疏」上下 二卷 혹은 三卷을 지었다 하나 現存하는 것은 下卷만이 전하여 왔다. 疏라는 것은 經文에 대한 注釋書이다. 이 經 下卷에는 五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大象受學品이 菩薩이 이 受持할 三聚淨戒 十重大戒受戒의 功德 懺悔 등 戒律에 관하여 쓰여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元曉의 이 疏는 元曉의 倫理觀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本經을 逐文注釋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要旨를 略한다.

元曉는 佛僧이다. 그러므로 그의 論著는 대개 佛敎와 관련 있는 글이다. 따라서 그의 戒律思想인 倫理觀도 佛敎의인 입장에서 다루어졌다. 그러기에 일반사회인에게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여겨졌고 또는 原文이 漢文으로 되었기에 일반인에게 읽혀지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을 沈載烈先生이 元曉의 現存著書들을 통해 照明·整立하여 人類의 倫理民族의 文化로 등장시킨 점을 높이 致賀하면서 民族의 偉人인 元曉를 우리 모두가 다시 認識을 새롭게 하는 契機가 되기를 바란다.